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축하 콘서트

‘나래코리아 & 전북벤처협회 콘서트’ 30일 전주덕진예술회관서 개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한 축하 콘서트를 연다.

올해에는 특별한 전북벤처협회(회장 이인호)와 힘을 합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축하 콘서트’를 오는 30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연다.

올해에 출연하는 출연진 중 가야금 연주자 황정희씨는 단국대 국악과를 졸업한 후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전통음악 석사 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효류 가야금산조 전수자로 달구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악인 서정금씨는 현재 국립창극단 부수석으로 서울예술대학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제28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세종시 명인열전에 출연하는 등 국악을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프라노 송난영씨는 숙명여대 성악과 졸업 후 미국에 유학 Manhattan School of Music 석사 졸업 후 충북 음악공과대학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내 외를 아우르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테너 류정필씨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후 이탈리아 파르마 오르페오 국제아카데미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우 콘서바토리아에서 대학원 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불후의 명곡’과 KBS 열린음악회 등 각종 TV와 라디오 등에 자주 출연하여 국민과 가장 친숙한 성악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엔 전주국제영화제에 특별히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선사한다.

또한 반주자 김지연씨는 성신여대 대학원 반주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블루뉴 국립음악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나래코리아 & 전북벤처협회 콘서트 포스터

악원 반주와 실내악 석사 졸업 후 서울대학교 성악과 반주강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는 배우 설수진씨가 담당한다.

1부는 가야금 연주자 황정희씨가 영화 ‘침묵의 노래’의 주제곡을 가야금 버전(편곡 이정아)으로 연주한다. 이어서 황씨가 이끌고 있는 국악창작그룹 ‘양상물 소리’ (백설화·지선우·서지원·이아현·김강록·조수아)가 ‘실내악을 위한 양정 도드리’ (조수아·정은선 편곡), ‘즐거움 락’ (정은선 편곡), ‘다시 오는 봄’ (조수아 편곡)을 잇따라 연주해 청중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

국악인 서정금씨는 황정희의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할로 아리랑’ (한울 작사·작곡)

을 판소리(황정의 편곡)로 부른다. 2부에서는 소프라노 송난영씨와 테너 류정필씨가 피아니스트 김지연씨와 호흡을 맞춰 영화 주제곡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를 준비한다.

소프라노 송난영씨는 ‘Cinema Paradiso’ (영화 ‘시네마 천국’ OST),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OST), ‘La vie en Rose’ (영화 ‘잠미빛 인생’ OST), 그리고 한국 가곡 ‘진달래’ (이상규 시·정애련 곡)를 부른다.

테너 류정필씨는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영화 ‘모정’ OST), ‘Padam Padam’ (영화 ‘잠미빛 인생’ OST), ‘Amapola’ (영화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OST), 그리고 우리민요 모음곡을 부른다.

끝으로 송난영씨와 류정필씨는 함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로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달군다.

음악회를 준비한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인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스물다섯 번째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개최하는 이번 축하 음악회에 참여하는 지명도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한 영화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벤처협회 이인호 회장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벤처는 도전이다라는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문화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북자치도민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조그마한 힘이나 보태고자 특별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5일 최훈식 장수군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음으로’ 출범식에 참석해 양해각사를 체결했다.

신라 금관총 패키지 전시 장수서 열린다

장수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음으로’ 개최지 선정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하는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음으로’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최훈식 군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모두의 걸음으로’ 출범식에 참석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순회 전시 참여 지자체 상호 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30여 곳의 공모 결과 장수군을 비롯한 12곳이 최종 선정된 이번 순회전은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 3개월 간 신라 금관총 출토유물인 금관(국보)과 금허리띠(국보), 아사지왕명 큰 칼 등이 장수역사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금관총 금관은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확인된 금관으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가 1921년에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국민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장수역사전시관은 순회전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잘알려진 국보와 보물을 중심으로 주제를 꾸린만큼 ‘작지만 알찬 전시’가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주요 문화유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순회 전시가 장수군민들의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는 시기에 고대사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 쇼핑관광 워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주 원도심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4 전주 쇼핑관광 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쇼핑관광 워크는 5월 2~9일 8일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라운지(프로모션 부스)에서 운영된다.

특히 전주 원도심 상가의 매출 증대 기대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 원도심 쇼핑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벤트는 △전주 원도심 상가(영화의거리, 객사길 소재) 구매영수증 이벤트 △전주국제영화제 구매 티켓 이벤트 △찾아가는 전북쇼핑 트래블라운지 이벤트 등이다.

또한 행사 기간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라운지(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 일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 내 다양한 맛집, 멋집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주 원도심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세일센터, 스마트탈공예지도사 교육 개강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재단, 원장 전정희)는 ‘스마트탈공예지도사(창업) 교육’ 개강식과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지난 26일 열었다.

교육 과정은 여성가족부 주관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교육 △사회적 경제의 이해 △SNS마케팅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 등의 창업 전문교육과 △양말목공예, 소이캔들,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공예

등 10여가지 토탈공예 실습교육으로 공예 분야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해 6월 12일까지(12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 창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 및 창업유관기관 간 일자리협력망을 통해 취·창업지원을 위한 수요처 관리,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공연이벤트 ‘풍성’

관객·시민 위해 5월 3-6일 진행

골목상영 일정과 폐막식 사회자 선정·공개로 기대감을 모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번에는 전주시 곳곳에서 열리는 관객과 시민을 위한 공연이벤트 일정을 공개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주시 곳곳에서 관객과 시민을 위한 공연이벤트를 선보인다.

우선, 전주라운지 토크스테이지에서 오은하 시네마 파라디소가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감독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은하는 시네마 파라디소에서 따뜻한 5월을 떠올리게 하는 소프라노 박서정, 남미 리듬 기반의 흥겨운 재즈 사운드를 선보이는 이그르산 재즈트리오와 협연한다. 세 뮤지션은 <리블>, <시네마 천국> 등 영화의 사운드트랙 라이브로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추억 여행을 선물한다. 여기에 지역 뮤지션인 페탈예술기획도 토크스테이지에서 공연으로 관객,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 지역 뮤지션들과 협업해 또 다른 공연이벤트를 준비했다. 탭댄싱이 박형주, 페이지, 적린운, 행로난, 고니, 윤별&항기, 느린날, 주간 김은총 등 지역의 실력 있는 뮤지션들도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영화의거리 내 메가박스 전주객사 앞에서 버스킹 무대를 준비한다고 해 기대감을 높인다. 또한 2020년부터 ‘조선팝의 도시, 전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전주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전주라운지 토크스테이지에서 다양한 조선팝 뮤지션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준비한 공연이벤트는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공연 일정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